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새 상임지휘자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무대를 선보인다. 합창단은 오는 12월13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146회 정기공연이자 오준혁 상임지휘자 취임 연주회 '새로운 여정: 하모니의 시작'을 공연한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오준혁 지휘자

겨울밤 밝히는 합창 무대... '새로운 여정, 하모니의 시작'

오준혁 신임 지휘자 취임 기념

내달 13일 광주예당 소극장서

이번 무대는 지난 9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새롭게 취임한 오 지휘자와 함께하는 첫 정기공연으로, 합창단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자리다. 이탈리아에서 합창지휘 및 오케스트라 지휘를 공부한 오 지휘자는 필리핀 P.B.T.S.대학교 지휘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귀국 후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광주북구립예술단 및 여

러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해왔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창단의 순수하고 맑은 음색을 중심에 두고 클래식부터 성가곡, 해외민요, 한국합창, 대중음악, 국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펼쳐 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섬세하고 투명한 화성으로 알려진 미셀 루에세의 '영원한 빛(Lux Aeterna)'으로 문을 연다. 이어 평온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전하는 더글라스 와그너의 '고요한 상투스(A Quiet Sanctus)', 헝가리 작곡가 조르지 오르반의 대표적인 합창 작품으로 경쾌한 리

듬과 극적인 에너지가 돋보이는 'Gloria'를 차례로 들려준다.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의 풍부한 음악성과 표현력, 하모니를 집중해 감상할 수 있는 무대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외국 민요와 라틴 음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구성이다. 영국 민요를 바탕으로 한 감성적인 합창곡 'Danny Boy' (편곡 러셀 로빈슨), 아일랜드 민요를 편곡한 'Down by the Salley Gardens' (편곡 더글라스 와그너), 푸에르토리코 전통 춤 무사카의 '플레나' 리듬을 기반으로 한 신나는 곡 'Plena'를 통해 각기 다른

지역의 정서를 합창으로 풀어낸다.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나는 반딧불'(정중식) 합창 버전을 비롯해, 서로를 비추는 '촛불'의 의미를 노래하는 G.O.D의 '촛불 하나', 전통 민요를 흥겹게 재해석한 '꽤지나 칭칭나네', 익숙한 민요 선율을 살린 '난감하네'까지 선보인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관객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곡들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특별연주로 지역 청년 밴드 기드온의 '7번 국도', '도둑고양이' 등 무대와

김원근의 피리 솔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오준혁 신임지휘자는 "이번 공연은 저와 합창단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다. 합창은 함께 쌓아가는 예술인 만큼 아이들의 목소리로 서로를 채우며 성장해나가고 싶다"며 "앞으로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공연 티켓은 전석 1만원으로,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AI 시대, 예술이 말하는 저항 언어

유네스코미디어아트국제포럼...오늘G.MAP

알고리즘 거버넌스 시대, AI 윤리와 기술 책임성을 예술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은 27일 '(불)복종하는 코드: 거부가 형식이 될 때'를 주제로 2025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국제포

럼을 연다. 기술이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 그리고 예술이 그 틈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탐구해보는 자리다. 이번 포럼은 2014년 영국에서 열린 대규모 전시 '반항하는 물건들(Disobedient Objects)'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을 오늘의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한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국내의 작가와 연구자, 기관 관계자,

활동가들이 참여해 기술·권력·예술이 교차하는 지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개회는 조아나 미란다 포르투갈 브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센터장이 맡는다. 이어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와 미국 뉴스쿨에서 활동하는 맥켄지 위크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AI 시대 윤리와 디지털 사회 구조를 철학적으로 짚는다. 김하경 G.MAP 센터장은 "이번 포럼이 AI 시대의 윤리와 저항을 예술적으로 사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서로 다른 삶 살아온

'창박의 여자'를 만나다

아트컬처 너랑나랑, 28-29일 미로극장

중산층 전업주부와 싱글 커리어 우먼,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는 두 여성이 마주하며 벌어지는 내면의 균열이 연극 무대로 펼쳐진다. 아트컬처 너랑나랑 주최 연극 '창박의 여자'가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29일 오후 3시 동구 미로극장 2관(구 공동예술극장)에서 초연된다. 배우 정경아와 고난영이 주연을 맡아 여성의 삶과 관계,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바라보는 섬세한 시선을 무대에 풀어낼 예정이다. 작품은 교외 타운하우스로 이사 온 전업주부

유정(정경아)과 마주 건너편에 사는 싱글 커리어 우먼 민영(고난영)의 시선에서 출발한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인물은 상대의 일상에 매력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기를 바라지만,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는 오히려 서로의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한다. 신성우작가는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 묶여 있지만, 동시에 각기 다른 특성과 정체성을 지닌 개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다"며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창을 쉽게 열지 않으려는 '창밖의 누군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연은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후원을 받았다. 입장권은 사전 구매 시 1만원으로 네이버폼(https://naver.me/xNnb0zwp)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오케스트라 선율로 전하는 '민주·인권·평화'

5·18청소년오케스트라

내달 6일 연주회 개최

‘고장난 시계’, ‘밤양갱’ 등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정신을 기리기 위한 연주회가 펼쳐진다. 광주 5·18청소년오케스트라(단장 김중분)의 제5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2월6일 오후 5시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백진선 지휘자의 지휘 아래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으로 협차게 문을 연다. 이어 '고장난 시계', '밤양갱', '개는 록', '카르멘 서곡' 등 친숙한 레퍼토리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찬조 출연진의 무대도 더해져 한층 다채로운 공연으로 꾸며진다. 블라썸 플랫 앙상블은 '반딧불', '예술이야',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을 연주하며 더 뮤직 싱어스 어린이 중창단은 '꿈꾸지 않으면', '도레미송', '아들의 여인 모음곡 제2번 파랑 돌', '아프리카 심포니' 등을 선보인다. 임영희 5·18청소년오케스트라 대표는 "오월의 가치를 음악으로 표현해 온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따뜻한 울림이 지역사회와 다시 한 번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석 초대석.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